

디지털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은 이렇게 말했다》 펴낸 김민수씨



컴퓨터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이 우리 사회의 전경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지 의견이 분분하다. 무릇 예측이란 극단적인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면 환영받기 힘들지만 현실의 변화는 완만하다. 맥루한 이래 수많은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2천년대가 시작된 지금도 변한다는 것만 확실할 뿐 정확하게 그 변화를 지적하긴 힘들다. 단절을 전제하는 혁명이 아니라 연속성의 측면에서 디지털혁명을 바라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할 바 있는 김민수씨(39)가 펴낸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은 이렇게 말했다》(생각의나무)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이미지 문화의 본질을 1930년대 문인 이상의 작품과 연결지어 살핀 이색적인 저서다. 글쓴이는 하이퍼텍스트·멀티미디어를 속성으로 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변종 텍스트'라 이름짓고 이 변종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기술, 그 쌍방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기술이란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대 이래 ‘본다’는 인식행위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문학은 그 매체에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그는 디지털혁명으로 야기된 인문학의 위기는 많은 부분 학자들 사이의 선입견이라고 말한다. 플라톤 이래 음성중심적 사고의 전통과 표상적 언어로서 글을 강조하는 서구 지성사의 편견이 디지털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무기력함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화장실에서 배우는 '역설의 철학'

《화장실에선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 펴낸 조정옥씨

보통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서 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성철학자 조정옥씨(42, 성균관대 강사)는 《화장실에선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철학과현실사)라는 책을 통해 그 방법을 일러준다.

“암울한 우리 현실 속에서 글쓰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자극하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우리 현실은 다리가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자동차 과속과 교통위반으로 무질서하며, 사회와 정치는 부정부패와 여성차별로 얼룩져 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책의 내용은 유쾌하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더럽다고 여기지만, 때론 사회보다 깨끗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화장실은 몸안의 노폐물을 버림으로써 몸과 영혼을 청소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적 노폐물을 청소하는 또 다른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책이 그런 화장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에서 화장실은 역설적인 공간이다. 화장실은 세상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곧 세상을 정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의 행동이다. 그가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방법은 꽤 장난스럽다. 유머, 풍자, 말장난, 어



“다다이스트·미래주의자·초현실주의자 등 근대 모더니즘의 실험을 예술의 종말로, 혹은 새로운 예술의 출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시점의 문제죠. 중요한 것은 성급한 예언보다 다양한 시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시점간의 대화가 미래를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의나무/A5신/318면/15,000원

“요컨대 시점의 문제죠. 고정된 틀에 박힌 시점이 다각화해야 하므로 디지털문화는 학제간 연구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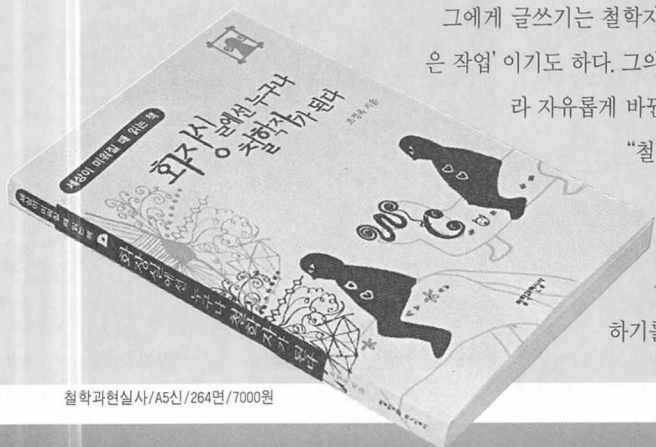
그에게 이런 과제는 이상의 초기 시편 분석으로 귀결됐다. <오감도> 연작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의 초기 시들은 그간 국문학의 영역 안에서, 혹은 많이 벗어난다 해도 정신분석학의 범주 안에서만 해석됐다. 건축가·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화가·시인·소설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이상의 작품을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작품 내적인 역동성을 도외시키고 자구 하나하나에 대한 주관적 과잉 해석이 내려진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상은 느닷없이 <오감도>라는 난해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천재인 것이 아니라 <오감도> 안에 동시대 문화적 정서는 물론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정서마저도 예견했기 때문에 천재입니다. <오감도>는 인쇄매체라는 평면적 공간 안에 펼친 3차원적인 역학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이상의 이런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미학은 구체시의 단순한 형태미를 훨씬 뛰어넘는 작업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시도가 재임용탈락으로 귀결된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아이러니다. 이상 시 연구가 연구내용 부실로 논문심사에서 탈락한 것. 서울대 예술관 52동 413호 문 앞에는 학생들이 붙인 ‘철거 반대 경고문’이 여전히 붙어 있다. 그러는 동안, 부실논문 판정을 받은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 <비저블 랭귀지>에 실리게 됐다.

“인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볼 때, 좀더 풍부한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가 말한 변종텍스트의 힘은 바로 이 같은 상호대화에 있다. - 김연수기자

“철학과 철학 아닌 것의 경계선은 수학과 수학 아닌 것의 경계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흐릿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철학의 주제와 관심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철학과현실사/A5신/264면/7000원

린아이가 그린 듯한 상상력 가득한 그림들. 그의 책이 얼핏 철학책이라기보다 마치 낙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학과 철학 아닌 것의 경계선은 수학과 수학 아닌 것의 경계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흐릿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철학의 주제와 관심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책의 철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뚝은’ 인생철학입니다.”

독일에서 감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그동안 <삶과 사랑을 위한 철학노트 196> <나는 억압되지 않은 사랑을 원한다> <나무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알기 쉬운 철학의 세계> <기분 나쁠 때 읽는 책> 등을 펴내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소재로 철학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특히 <기분 나쁠 때...>은 <화장실에선...>의 전편격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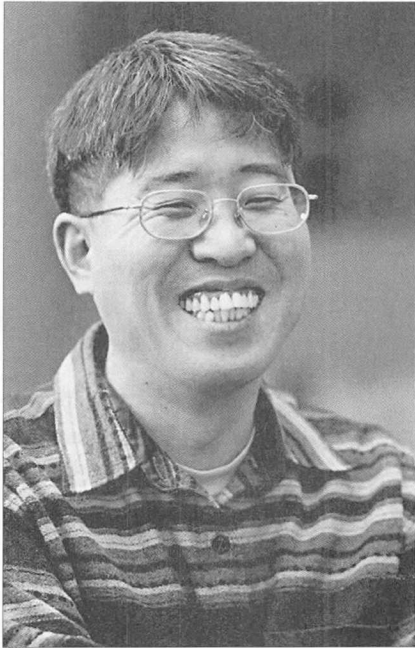
“철학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즐거운 것이지요.”
그에게 글쓰기는 철학자로서 세상에 개입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휴식같은 작업’이기도 하다. 그의 책들에서 글의 주제와 분위기, 문체는 그때 그때 처한 상황과 생활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바뀐다. 그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철학하기’를 권한다.

“철학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지요.”

근래 들어 그는 그림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기분나쁠 때...>와 <화장실에선...>의 삽화를 직접 그렸다. 그는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유로운 철학하기를 계속 할 것이다. 앞으로 그가 어디로 ‘될지’ 자못 기다려진다. - 김정은 기자

문명사의 시각으로 다시 쓴 동서양의 역사

《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서양사》《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동양사》 펴낸 남경태씨



역사학자의 꿈은 통사를 집필하는 것이다. 통사는 '사리' 처럼 학문적 역량과 연륜이 응축된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 젊은 전문집필자가 '용감하게' 동서양의 문명을 아우르는 통사를 내놓았다. 《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서양사》《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동양사》(그린비)를 펴낸 남경태씨(39)가 바로 그다.

“저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지식 보급자일 따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세계사는 지루한 과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난잡한 인명·지명과 연대만이 머리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파악하면 좀더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학계 밖에서 글쓰는 아웃사이더인 남경태씨는 제도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감하게 발언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1년 6개월 남짓 역사집필에 몰두했다. 시간과 공간이 복잡하게 뒤얽힌 역사를 어떻게 엮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하나의 서술원칙을 세웠다. 문명사적 시각으로 역사를 다시 쓰자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무의식적으로 1민족1국가적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종잡을 수 없거나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는 '지역사' 지 '국사'가 아닙니다. 문명의 흐름, 이동, 전파의 관점에서

후삼국에서 찾아낸 자주적 통일의 길

《후삼국기(1~5)》 펴낸 박영규씨

우리 역사에서 후삼국 통일은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높이 평가될 대목이다. 무엇보다 한 반도를 자주적으로 통일한 것은 분단조국의 현실에서 보면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삼국의 역사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통일신라가 왜 삼국으로 분열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룩했는지 기록된 사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후대에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동안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일을 펼쳐온 박영규씨(36, 책과사람들 대표)가 소설 《후삼국기(1~5)》(들녘)를 통해 그 역사를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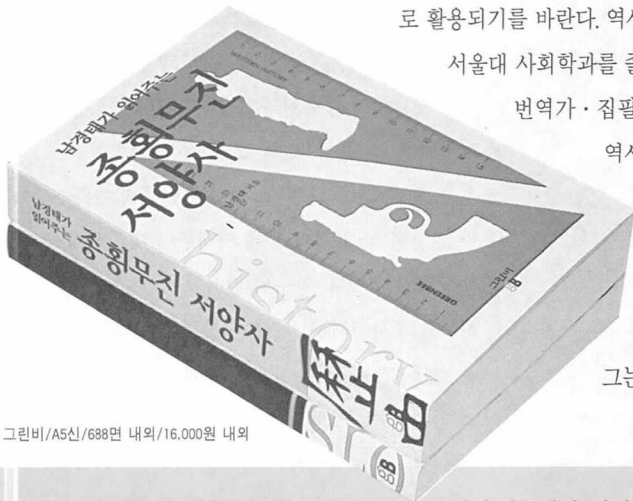
“영웅호걸이 생명을 거둬주는 역동적인 시대였던 후삼국은 외세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기념비적 시대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후삼국 45년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는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기 위해 전설과 설화, 그리고 족보까지 들춰다. 우리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전국시대'(戰國時代)였던 만큼 다른 무엇보다 전쟁사의 복원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 작업도 쉽지 않았다. 한반도 지형에 따른 전쟁의 양태를 보여주는 사료가 전무한 탓이다.

“우리는 보통 전쟁하면 《삼국지연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 양상은 중국과



“동서양의 역사를 민족국가적 시각으로 보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거나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는 ‘지역사’ 지 ‘국사’가 아닙니다. 문명의 흐름, 이동, 전파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린비/A5신/688면 내외/16,000원 내외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책은 동서양 문명의 흐름을 생명체의 성장과정으로 기록했다. 서양사는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며 열매맺는 나무의 성장에 비유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다른 사람과 뒤섞이듯이 중국·일본·인도사를 엮어간다. 중심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적 문명이 서양문명이라면, 동양문명은 지역적으로는 그 범위가 넓어졌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은 중심고정의 역사라고 파악했다.

“동서양문명의 근원적인 차이는 중심이동과 중심고정의 역사에서 기인합니다. 중심이 고정된 중국에서는 제국시대가 수천년 동안 지속되면서 여러 제국이 흥망을 거듭했고, 중심이 계속 이동한 유럽에서는 하나의 통일제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지역분권시대가 열렸습니다.”

역사에서 개념은 중요하다. 남경태씨는 역사의 개념을 깨지 않은 구슬이라고 본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목걸이에 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남경태씨는 이 책이 고등학교 역사수업에서 교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역사교사들이 개념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90년대 중반부터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96년부터 전문번역가·집필가로 활동해왔다. 그 동안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등을 집필하고 《아서 니호프 교수의 사람의 역사》 등을 번역했다.

올해 말까지 이번에 나온 책들과 짝을 이룰 《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한국사》를 펴낼 예정이다. 오는 3월경에는 《비잔틴 제국사》를 번역·출간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배워서 쓴다’는 자세로 종횡무진 집필하고 있는 그는 전문학자와 대중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힘쓰겠다고 전한다. - 박천홍 기자

“후삼국 통일과정을 그린 소설이지만 결국 지금의 한반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분단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은 왕건이 보여준 친화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광활한 평원을 달리는 장면도, 수십만 대군이 뒤엉켜 싸우는 격전도 없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따른 독특한 전쟁을 수행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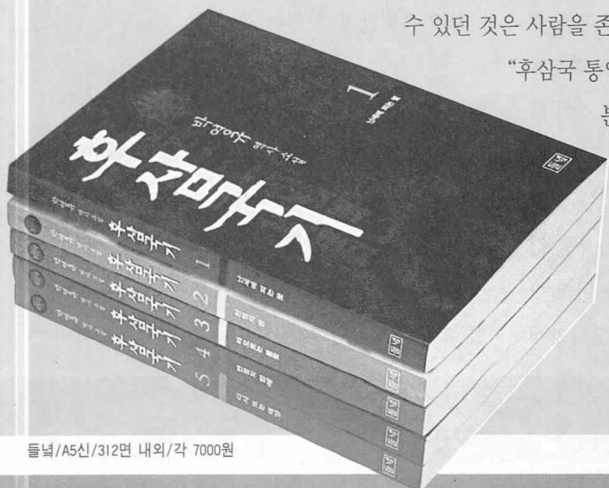
그는 한반도를 거듭 침범한 수·당이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형 차이였다는 사실에서 우리 고유의 전쟁을 유추했다. 즉, 그는 우리 지형에 맞는 산성싸움, 해상전 등을 연출해 당시의 전쟁 장면을 생생하게 복원한 것이다. 지리적 사실의 복원은 남아 있는 사료 가운데 후삼국과 가장 근접한 <대동여지도>를 근간으로 삼았다.

“소설의 기반은 사료입니다. 하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과 장면은 허구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료를 상상력으로 채운 셈이죠.”

3년 동안 사료와 상상력을 동원해 집필하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찾은 것은 후삼국 통일의 힘이었다. 그는 후삼국 통일의 힘을 ‘친화력’에서 찾았다. 견훤과 궁예보다 세력이 약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던 것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친화력에 있었다는 것이다.

“후삼국 통일과정을 그린 소설이지만 결국 지금의 한반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분단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왕건이 보여준 친화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앞으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는 글을 쓸 계획이다. 역사교양서와 역사소설 집필에 매달렸던 것도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이었던 셈이다. - 오원진 기자



들녘/A5신/312면 내외/각 7000원